

# 여성부흥사회, 제43회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

## 신임 이상복 목사 취임...“영적 부흥위해 최선을 다할 터”

여성 부흥사회 제43회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 및 월례회가 3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신정동 소재 베델교회(이상복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교단 주요 인사들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와 취임식, 월례회 순으로 순서가 이뤄졌다.

상임회장 전승환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1부 감사예배에서는 공동회장 김정은 목사의 대표기도 후 기쁨충무 및 서기 홍석영 목사가 성경봉독(행 6:4-7)을 했다. 이어 전 총재 김신호 목사가 ‘기도와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목사는 “부흥사는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서 기도와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며, “영성 회복이 곧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특별 중보기도 시간에는 △총회와 전국 교회 및 신학원(연수원장 고신원 목사) △여성 부흥사회와 회원 교회의 부흥(부총재 임태진 목사) △세계 평화와 나라와 민족 복음화 및 세계선교를 위해(상임부총재 정성환 목사) 기도했다. 이어 사무총장 김영국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취임식에서는 이상복 목사가 제43회 대표회장으로 취임했다.

회원들은 취임패와 꽃다발을 전달하며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신임 대표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부흥사의 하나 된 교단의 영적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복 목사는 제26대 총재 김신호 목사와 제42회 대표회장 고신원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를 표했다. 축사는 교단 총무 권순달 목사가 맡았

으며, 전 총재 이윤구 원로목사의 축사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어진 3부 월례회에서는 회원 전명과 함께 사업 및 회계 보고가 진행되며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방향성을 점검했다.

한편, 다음 월례회는 오는 5월 1일 오전 11시, 시흥중앙교회(김정은 목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여성 부흥사회는 앞으로도 복음 전파와 영성 회복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와 민족을 섬기는 사역에 더욱 힘쓸 것으로 기대된다.

# 故 홍대실 권사 제55주기 추모예배 거행

## 성결교신학교 설립 기여... 대학 발전의 초석 기린 헌신 재조명

성결대학교(총장 정희석)는 4월 2일 오전 11시, 학술정보관 6층 아담국제회의실에서 故 홍대실 권사의 제55주기 추모예배를 드렸다.

이날 추모예배에는 유족과 학생 및 교직원, 교단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헌신과 업적을 기렸다.

故 홍대실 권사는 진지동성결교회 설립을 시작으로 강릉교회, 운양교회 등 8개의 교회를 단독으로 개척한 헌신자이다. 또한 성결대학교 설립자인 故 영남 김응조 목사를 도와 성결대의 전신인 성결교신학교를 세우는 데 공헌했으며, 이후 경기도 안양에 자신이 소유한 땅 73,481㎡(22,228평)를 학교 교지로 기증하며 대학 발전의 초석을 마련한 공로자이기도 하다.

이날 총회장 홍사진 목사는 “홍대실 권사님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함을 표하며 권사님의 가르침과 영적 지도력은 교단과 성결대학교에 계속되어야 할 가치 있는 유산”이며 “권사님의 발자취를 따라



교단과 학교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성결대학교 총장 정희석 장로도 추모사를 통해 “홍대실 권사의 헌신은 성결대학교의 시작을 가능하게 한 기반이자, 오늘날의 대학을 있게 한 뿌리”라며 “그 정신은 앞으로도 성결대학교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대표인 고병현 회장은 “한 사람의

헌신이 씨앗이 되어 오늘날의 성결대학교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그 뜻이 이어져 더 많은 인재를 길러내는 대학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결대학교는 홍대실 권사의 신앙과 헌신을 계승하여 대학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미래 사회를 이끄는 인재 양성에 지속적으로 힘써나갈 계획이다.

[기고] 여성여목회자회 회장 양재은 목사

#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교회를 새롭게 하자”

## 제3회 복음컨퍼런스 개최

지난 3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제3회 복음컨퍼런스가 개최되어, 전국 각지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복음의 본질을 다시 확인하고 신앙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컨퍼런스는 교회가 본질을 잃어가는 시대 속에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 교회와 성도들이 증가하며 교단과 한국교회 안에서 의미 있는 복음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는 시냇가푸른나무교회의 신용백 목사와 경안교회의 고원영 목사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다. 강사들은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신앙의 왜곡과 한계를 진단하며, 신앙이 단순한 종교 행위나 축복 중심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적 삶으로 회복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단순히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어아 한다”는 메시지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도전과 깨달음을 주었다. 또한 복음은 단지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존재를 바꾸는 능력임을 선포하며, 교회와 성도가 복음 위에 다시 서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복음을 더욱 깊이 나누기 위한 결실로, 복음컨퍼런스 대표 고원영 목사가 「구원 다시보기」를 출간했다. 이 책은 복음을 신학적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언어로 풀어내며, 구원의 본질과 하나님 나라 관점의 신앙을 제시한다.

저자는 책을 통해 “구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나아가는 시작”입

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돕고 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 성도는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집회를 통해 복음을 다시 보게 되었다”며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 귀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복음컨퍼런스 관계자는 “이 사역은 단순한 일회성 집회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 위에 다시 서도록 돕는 지속적인 운동”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교회가 함께 참여하여 복음 안에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 시대 빛을 발하는 여목회자회되길 소망”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여목회자회 32회 회장 직분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목회자회는 이사가 60장 1절 “연합, 빛을 발하라”는 표어 아래 여섯분의 임원목사님들과 200여 명의 회원들이 함께 연합하여 빛을 발하는 여목회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여목회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목회자회 회장님으로 모시고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연합하여 초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신장 가지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한 회기 동안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교단과 연합입니다.** 저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교단을 사랑합니다. 또한 여성 목회자로 세움 받은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교단 총회 조직에는 총회장을 기준으로 산하 여러 부서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목회자회는 교단 협력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여목회자회 공동체가 존재함이 감사입니다. 2004년 교단내 여성목사 인수를 시작으로 200여 명의 여성목사가 배출되었고 성장하여

왔으며 80여개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세번째, 지방회와 연합입니다.** 지방회에 소속되어 여목회자들도 인수연수에 따라 이미 여러명의 지방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회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여목회자들의 연합을 기대합니다.

**네번째, 협력 기관과 연합입니다.** 동역자들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인 성결대학교 신학대학원, 성결교신대원 등의 장학금지원으로 동역자들을 세우는 사역에 연합하며, 교회 연합의 모델이 되고 있는 국내선교위원회의 성결전도대, 해외선교위원회 등 교단의 여러 기관사역에 연합하여 여목회자들의 사역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목회자 상호간 연합입니다.** 격월로 준비되는 공식 월례회는 여목회자회 사중복을 기도로 교단내 모든 여목회자들이 연합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여성사역 선구자이며, 성결운동의 지도자인 파비팔머의 화요 성결기도운동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 아니라 지금도 재현 가능한 영적 모

델입니다. 21세기 AI시대 예성의 여목회자회가 기도운동을 일으킬 때 성결의 빛은 더 크고 선명하며 기도의 힘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예성의 여목회자회에 아낌없는 사랑과 기도로 함께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중복을 기도의 빛, 사역의 빛! 이 시대 빛을 발하는 여목회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연합” 2행시로 여목회자회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연**-연약한 한사람, 한사람이 연단을 지나 단단한 보석같은 공동체로 일어났습니다.

**합**-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여목회자회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양재은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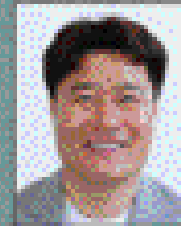


주님앞에세움교회

# 부흥하는독일교회 창립 50주년 임직감사예배

## 2026. 4. 18(토) 오후 2시 부흥하는독일교회

### 시무장로



역대영 안수집사

김향애 권사

심경숙 원사

윤용태 안수집사

김영우 안수집사

### 말역장로

노진현 권사 김정영 권사 함천수 권사 김복호 안수집사

### 말역권사

역현호 원사 함동현 원사 김성덕 원사 박은순 원사 장영진 원사 김철순 원사 역은혜 원사 심은영 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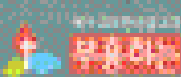
### 결사

강도희 집사 박희용 집사 박희희 집사 정영남 집사  
김민선 집사 안희희 집사 김억애 집사 최은주 집사  
김학순 집사 역송희 집사 박혁철 집사 박민규 집사  
김영주 집사 김민숙 원사 역은숙 집사 직정숙 집사

### 안수집사

역근애 원사 오남일 원사 김연석 원사

“이 광고로 소청장을 대신합니다.”



부흥하는독일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산로 40-1 성결교회(서울구로역) 구로구 독산동 179-1

☎ 02-835-0466